

Global Goings-on

보험사들을 옆외시킨 새로운 의료비 지불 방식 Doctors try new models to push health insurers aside

- ▶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진료비 지불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해
 - 현 보험제도에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의료 시술과 검사 건수에 따라 급여를 받게 돼 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아
 -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 건강보험사들을 통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매월 소정의 회비를 청구하고 이 회비로 비용을 총당해
 - 건강보험개혁법은 이런 방식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으나 모두가 이 새로운 방식을 환영하지는 않아
- ▶ 시애틀 소재의 Qliance Medical Management가 운영하는 세 병원은 12명의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무제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한 달에 회비로 65 달러를 부과하고 있어(회원비는 진료의 종류와 환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)
 - 의사와의 진료 및 상담은 1시간 가량 가능하며 병원은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되고 이메일과 전화로도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어
 - 일반적인 예방접종과 내원 절차는 모두 무료이며 검사비나 기타 외부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도 거의 원가로 제공되고 처방약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
- ▶ Qliance의 CEO인 Norm Wu씨에 따르면 Qliance가 환자당 연간 회비로 700~800 달러를 받는 금액은 의사들이 표준 보험수가로 받는 금액의 세 배 이상 - “그래서 저희는 의료인 1명 당 3분의 1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보면서도 같은 수입을 올리면서 동시에 간접비는 훨씬 적게 드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”
 - Wu씨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Qliance는 더 많은 재정을 치료 자체에 투입하거나 보다 나은 진단 장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혀
- ▶ Bruce Henderson씨는 Qliance가 최초로 병원을 개원한 2007년 회원으로 가입해
 - 당시 Henderson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

- 으나 이내 퇴직하여 현재 63세
- 현재 Henderson씨는 1차 진료에 대해 매월 79 달러의 회비를 지불하며 연간 만 달러 공제가 가능한 형편없는 의료보험의 보험료로 매월 225 달러를 지불하고 있어
 - Henderson씨는 고혈압, 고지혈증,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
 - Qliance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Henderson씨는 약을 저렴한 약으로 바꾸면서 매월 본인이 직접 지불하던 의료비를 500 달러에서 100 달러로 줄여
 - 그는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당뇨검사를 받고 있어
 - 주기적으로 피부암을 조기에 제거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낭종 제거를 위해 병원을 세 번 방문해
 - “제가 필요한 만큼 의사들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. 환자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배려합니다.” Henderson씨가 말해
- ▶ 2007년 워싱턴 주 법은 1차 진료비 직접지불 방식과 같은 “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창의적인 프로그램”을 권장해
- ▶ 워싱턴 주의회의 보험위원회에 제출된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직접적인 지불 방식을 채택한 병의원은 15군데
- 일부는 개별화된 고급 서비스에 대해 월 850 달러씩 부과하는 부유한 환자들을 겨냥한 일반적인 “고급” 서비스에 불과하지만 최근 월 85~135 달러 정도를 부과하는 병의원 성장이 두드러져
- ▶ 워싱턴 주에서 직접지불방식이 가장 성행하고 있지만 많은 다른 주에서도 1차 진료의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
- 노스캐롤라이나 아펙스에 소재하고 있는 Access Healthcare에서는 회원들에게 월 회비 35 달러와 1회 방문 당 20 달러를 받으며 무제한의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
 - Access Healthcare를 운영한 지 10년이 넘는 설립자 Brian Forrest씨는 올 여름에 최초의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계획
 - Forrest씨는 회원의 절반이 1차 진료 1회 시 35~50달러를 보험사에서 지불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이 환자들에게는 회비를 내고서라도 Access Healthcare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해
- ▶ 워싱턴주 주지사인 Chris Gregoire와 워싱턴주 의원들은 연방보험개혁법안에 직접지불 방식 허용규정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해
- 이 법안에 따르면 2014년에 개시될 주 보험상품을 판매할 보험사들은 1차진료 의료비 직접지불상품을 통해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
 - Qliance에서는 Qliance의 회원비로 제공되는 진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전문적 진료, 입원 등을 이런 보험이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
 - Qliance Medical Management의 CMO (chief medical officer)인 Garrison Bliss씨는 이를 1차 진료와 보험의 새로운 관계라고 말해
 - 환자들은 매월 두 가지 종류의 의료비를

부담하게 되는 꼴: 하나는 1차 진료에 대해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회비이며 다른 하나는 그 회비로 커버할 수 없는 진료를 커버하는 의료보험료

- Qliance의 Wu씨는 양질의 1차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응급진료와 입원 같은데 들어갈 보험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

- ▶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이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고 말해
- 새 법안에 따르면 무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예방서비스에 대한 월비용을 1차진료 직접지불방식에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?
- 일각에서는 현 1차 진료비 지불방식이 싹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접지불방식을 통해 보험제도 밖에서 1차 진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회비를 낼 수 없는 많은 환자들과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해

2011년 3월 7일 / Washington Post
 <원문 링크: <http://www.washingtonpost.com/wp-dyn/content/article/2011/03/07/AR2011030703989.html>>

미 국

그리 행복하지 않은 생일 맞은 건보 개혁

What will become of Barack Obama's health reforms?

- ▶ باراك 오바마는 2010년 3월 23일 건보개혁안에 서명함으로써 그를 백악관으로 들인 국민적 인기를 타고 이전 어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성과를 이뤄내
- ▶ 그러나 정치적 현실은 이 거대한 계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
 - 미의회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 법안을 송두리째 폐지하려 하고 있으며 몇몇 연방판사들이 법안의 핵심규정 중 하나인 "전국민 가입 의무"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해
 - 최근 Kaiser Family Foundation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무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감을 갖고 있음이 나타나
- ▶ 의심을 돌리고 법적인 도전을 약화시키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주요 전략은 새로운 법안을 멈출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보이게 하는 것
 - 미국 보건복지부장관 Kathleen Sebelius는 상원재정위원회에서 건보개혁법안으로 인

해 이미 미국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해

- ▶ 오바마 행정부는 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을 실행에 옮겨
 - 보험사들이 병력이 있는 아동의 보험가입을 막지 못하게 하고 평생 지불할 수 있는 보험금에 한정액을 정하지 못하도록 해
 - 또한 부모의 보험으로 자녀가 26세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12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혜택을 받아
 -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케어에 가입된 약 4천8백만 명의 노인들이 결장경과 유선 조영술 같은 예방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
 - 2010년 이들 중 4백만 명이 약값 지불을 위한 250 달러의 비과세 리베이트를 받아
- ▶ 이 모든 인상적인 변화에도 미국인들은 Sebelius 장관의 증거를 신뢰하지 않아
 - KFF가 조사한 국민의 절반 정도는 오바마 개혁이 이미 폐지됐거나 법적 기반을 잃었다고 믿어
 - 그러나 오바마 개혁안은 여전히 미국법
- ▶ 개혁법안의 규정이 대부분 효력을 발하게 될 2014년이면 미국의 주(州) 정부들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보험혜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야 해

- 연방정부는 이를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을 통해 이 제도 실행을 위한 주정부의 협조를 얻으려 하나 이마저도 장애에 부딪쳐
-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연방정부의 돈을 거절하고 있고 다른 주들은 규정 적용에 융통성을 구하고 있어
- 놀랍게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모임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인 Ron Wyden이 처음 제안한 “혁신 면제”를 지지한다고 밝혀
- “혁신 면제”란 주정부가 보다 많은 시민들의 보험가입을 추구하고 의료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의 보험시장을 규제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

- ▶ 그러나 오바마개혁안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의 수위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
 - 그렇다면 공화당의 공격이 개혁안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?
 -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는 개혁안을 죽일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
 - 따라서 개혁법안을 폐지하고 다른 법으로 대체하려는 법적인 시도는 상원과 백악관을 동시에 장악할 때만 가능할 것임.
 - 현재로서는 개혁법안을 전면 중지시키는 것보다는 법안을 실행에 옮길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여
- ▶ 개혁법안의 적들이 품고 있는 또 다른 야망

은 헌법재판소가 개혁법안의 “가입의무”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것

- 그러나 헌재가 이를 바로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혁법안이 뿌리를 내릴 시간을 주게 될 것이며 혹 위헌으로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의무 가입 조항을 이 조항이 유도하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‘당근과 채찍’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어

▶ 오바마 개혁안의 장기적인 영향?

- 개혁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해

- 법안 지지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뿐 아니라 전체 의료비 절감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

- 두 주장 다 문제가 있어

▶ 공화당원들은 고용주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폐지하고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근로자들을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건강보험으로 내 몰 것이라고 주장해

- 그러나 RAND Corporation과 Urban Institute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개혁법안으로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긴 근로자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직장보험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 건강보험 가입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

▶ 오바마 개혁안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시스템에 수 백만 명의 가입자를 밀어 넣는 꼴

-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이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전망

- 오바마 진영의 주장은 미래의 효용 증가와 혁신으로 인해 의료비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것

▶ 오바마의 측근인 메사추세츠 주지사 Deval Patrick이 최근 오바마 진영과는 다른 주장을 펼쳐 충격

- 개혁법안의 전신이 된 메사추세츠 주의 개혁에 대한 질문에서 주지사는 메사추세츠 개혁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개혁안은 우선 가입을 확대하고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안이라고 말해

- 미국은 곧 의료비 비용 상승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

2011년 3월 17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 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8389179?story_id=18389179〉

영국

지역간 소득 불균형

Gaponomics: Regional disparities

▶ 영국의 Watford Gap은 지리적으로 특출한 곳은 아니지만 문화적 아이콘

- Northamptonshire에 있는 두 언덕 사이의 이 조그만 분지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으며 이 곳은 영국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비공식적 경계
- Watford Gap를 기점으로 양 쪽의 생활은 피차에게 마치 외국과도 같아
- ▶ The Economist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경기 침체 이후 부유한 나라들의 지역간 소득격차는 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더 벌어져
 - 영국의 빈곤지역(주로 북부와 웨일즈 지방)과 부유한 지역(남동부)의 격차는 지난 20년간 계속 벌어져
 - 이 격차가 지난 경기침체에서 더 심해졌으며 정부의 예산삭감이 가난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격차는 더 커질 것
 - 영국의 최빈 지역의 일인당 GDP는 이제 중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의 그것보다 낮아
- ▶ “상하이에 뒤쳐진다”는 것은 정치인들에겐 선거에서 불리한 사실이며 그 동안은 정부의 보조금이 이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 와
 - EU의 “구조펀드(structural funds)” - EU 예산의 3분의 1 이상 규모 - 는 EU 내 부유한 지역으로부터 가난한 지역으로 자금을 옮기기 위한 방편
 - 미국도 Appalachia와 같은 빈곤지역에 연방정부의 돈을 쏟아 붓고 있어
 - 영국의 연합정부는 빈곤지역을 세금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대처수상식 접근법을 다시 꺼내 사용하고 있어
- 3월 5일 George Osborne 영국 중앙은행장은 세제혜택과 도시계획규제를 단순화 한 “비즈니스 구역” 열 군데를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
- ▶ 불행하게도 영국이 시도하려는 것과 같은 지역개발프로그램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
 - 엄청난 양의 자금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부유한 북부지역과 가난한 남부지역간의 경제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막대해: Calabria 인구의 취업률이 40%인데 비해 Lombardy와 Bolzano는 65~70%
 - 효과가 명확해야 할 인프라 개선과 같은 정책들도 만병통치약은 아님이 드러나
 - West Virginia에는 많은 도로가 건설되었으나 이 지역은 여전히 가난한 지역임.
 - 때로는 좋은 의도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: “비즈니스 구역”과 기타 지역의 세제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 그러한 혜택이 없는 지역의 일자리를 줄여
- ▶ 뒤쳐진 지역을 소생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보단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인들에겐 현명한 처사일 것
 - 지역의 번영은 거주민의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성, 자본투자 규모, 그리고 혁신의 속도에 의해 결정돼
 - 이 요소들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
 - 도시 지역이 시골지역보다 생산성이 높으며 도시들도 서로 생산성에 차이가 있어
 - 19세기 Manchester와 Liverpool을 변화하

게 했던 면화공장과 바다의 근접성은 21세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
- 21세기에는 영국의 강점인 금융과 전문 기술이 몰려있는 London과 남동부가 번영해

- ▶ 따라서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
 - 첫째, 사람들이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
 - 지역간 생산성의 불균형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후하는 지역에서 번영하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
 - 영국의 주된 문제는 주택소유에 대한 맹신과 남동부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이는 일부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에서 오는 결과이기도 해
 - 따라서 영국을 돕는 데는 Watford Gap 이 남 지역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북쪽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더 나을 것

▶ 둘째, 교육에 중점을 줘야

- Sunderland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은 21%에 불과해 London의 39%와 크게 차이나
- 영국 정부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서부터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까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북부지역 영국인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
- 분명한 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올 것이라는 것
- 그러나 어쨌든 영국 전체로 볼 때는 영국이 더 발전하는 길

2011년 3월 10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 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8332806?story_id=18332806〉